

'올해의 책'에 한국전적인쇄사 등 5권

출판기재단 선정...평민사·동문선 등 출판사엔 특별상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발간된 책 중 완간된 것을 대상으로 중앙일간지 및 방송·통신사 출판담당 기자들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 '올해의 책'에 천혜봉교수의 「한국전적인쇄사」를 비롯, 「강좌중국사」 「자본론」 「우리꽃 백가지」 「소설 동의보감」 등 5권이, 그리고 특별상 수상자로는 동문선과 평민사 두 출판사가 각각 뽑혔다.

다음은 올해의 책과 특별상 수상 출판사의 선정이유 및 해제.

■**講座中國史**(서울대동양사학연구실 엮음)
한국동양사학계 40여년의 연구역량이 총집결된 본격 중국통사.

왕조사 중심의 시대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사를 36개의 주제로 압축,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독립된 논문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엮은 '논문식 통사'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고대문명과 제국의 성립」 「문벌사회와 胡·漢의 세계」 「사대부사회와 몽고제국」 「제국 질서의 완성」 「중화제국의 동요」 「개혁과 혁명」 「신질서의 모색」 등 전7권으로 구성. 지식산업사.

■**韓國典籍印刷史**(천혜봉 지음)
형태서지학의 측면에서 한국전적의 통사를 서술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전적의 형태적細部를 실증적으로 조사·감별하고, 우리나라의 목판 및 활자인쇄의 성격과 특징을 全代에 걸쳐 시대별로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저자 천혜봉교수(성균관대)가 서지학자로

서의 30년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이 책은 찬란했던 우리 인쇄문화를 본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서지학 및 주변분야 연구의 기본서이자 자료집으로도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범우사.

■**資本論**(김수행 옮김)
「자본론」은 칼 마르크스가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사회주의로의 길을 터놓은 정치경제학의 고전.

국내에서는 이념의 금기 때문에 소개가 늦어지다가 87년 이론과실천사에서 처음으로 제1권의 번역본이 나온 후 비봉출판사(89~90년), 도서출판 백의(90년)에서 잇달아 나왔다. 이중 백의본이 북한번역본이라면 이론과실천사본은 독일어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가장 먼저 번역출판된 것이기는 하나 석·박사과정의 사회과학도들이 여럿이 나눠 번역한 한계를 갖는다.

반면 비봉本은 영국본과 북한본을 저본으로 했으나 국내서 손꼽히는 정치경제학자인 김수행교수(서울대) 혼자서 6년간 공들여 번역했다는 비중을 높이 사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전5권 비봉출판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김태정 지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꽃들에서부터 백두산 고원에서만 피는 들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100가지를 가려뽑아 그 생태와 용도, 속명, 유래와 전설, 분포도 등을 풍부한 컬러화보와 함께



실은 책.
'재미있게 풀어쓰기'가 크게 유행한 출판풍토에서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 기왕의 쉽고 잘 팔리는 책들과는 다른 의미를 주며, 백두산 야생화를 포함해 이 책에 실린 모든 들꽃 사진들을 저자가 직접 필름에 담은 것이라는 점도 큰 특징. 현암사.

■**소설 동의보감**(이은성 지음)
동양의 2大醫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東醫寶鑑」의 저자 許浚의 일대기를 형상화한 소설. 천출의 몸으로 태어나 온갖 신분의 제약 속에서도 중국의학에 의 의존을 타파하고 민족 의학을 세우려 한 허준의 생애가 감동과 재미 속에 그려져 있다.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단순한 전기문학적 차원이 아닌, 감동과 재미를 지닌 소설문학으로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빼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전3권 창작과비평사.

■**평민사**(「한국구전설화」 및 「한국의 한시」 시리즈)

「한국구전설화」는 입석재용이 채록한 전국의 설화를 묶은 것으로 현재 평북, 함북, 함남, 강원, 경기, 전북편 등 7권이 나왔는데 저자의 필생의 작업으로 전집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의 한시」는 우리나라 한시를 새롭게 번역하는 작업으로 공공의 차원에서 시도돼야 할 작업을 한 출판사가 시리즈로 출간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동문선**(「문예신서」 시리즈)
우리문화의 고향을 동양의 고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 아래 상업성이 없는 동양학 관련 저술을 「문예신서」 시리즈로 펴내고 있다. 민속, 무속, 신화, 도교, 무예 등 '가장 동양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출판사측의 우직한 고집이 높이 평가됐다.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지금 즉시 신비한 UFO 비행음을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시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 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삭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데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선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어>이야기—

- 주요목차
- 농부<마이어>사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오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을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전명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